

주간



Keep It Simple and Short

2019학년도 수능완성 W14(9~13)




영어 노베이스에서 100점으로 이르기 위한 영어 공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단어, 해석(문장 단위), 문풀(지문 단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문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 문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단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어 문풀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적당한 난이도의 영어 빈칸 지문 하나를, ebs 해석 말고 정성을 들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잘 번역했다고 합시다. 그럼 글을 '이해'하는 데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사고 논리' 자체는, 정말 스무살 지성인을 위한 수준일까요..? 대부분이 그 아래일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 절평 영어 체제에서 많아봐야 두 문제고, 이마저도 절평이기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말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해 해석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이면 절평 영어 1등급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본인이 '공부하기 쉽게 느껴지는' 문제 풀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빨라도 6평까지는 단어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아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풀 논리를 익히는 것은 6평 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학생이라면 문풀 논리를 익히고 체화하는 건 한 두 달이면 됩니다. 제발,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오래 고민하듯, 한 문장을 한 지문을 두고 어떻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를, 'EBS 영어'로 하는 겁니다. 기출 영어만큼 지문의 문풀 논리가 좋은 지문이 많은 건 아니지만, EBS 영어 지문도 단어와 해석을 위한 '좋은 영어 지문'임은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 내신의 시험 범위이고, 6, 9, 수능에 '똑같은' 지문이 7, 8 개가 나오는데, EBS가 아닌 다른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평가원 기출 제외)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BS 연계 교재 3권의 1000지문 가까이 되는 영어 지문의 모든 단어와 해석을 공부하면, 절평 영어 1등급에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평가원 기출로 문풀 논리를 병행하며 체화하고 그냥 100점 맞으세요 ☺

명심하세요. 고정 100, 고정 1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문법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습디다만, '해석'을 시켜보면, 예외 1도 없이, 다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곧잘 해석을 합니다.

1.  이와 같은 꺾쇠의 의미는, 지문을 보통 3등분 혹은 2등분을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꺾쇠로 나뉜 각 덩어리는 ‘요약’ 부분의 각 번호와 일치합니다.
2.  화살표에는 이와 같이 일방향과 쌍방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향은 보통 답의 근거를 나타내며, 쌍방향은 두 단어, 문장이 반대의 의미임을 나타냅니다.
3.  의 의미는
 - a. 당연히, 중요 지문입니다. 부여 기준은 ‘평가원 변형 가능성 X 난이도’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 순위는 ‘평가원스럽게’ 변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좋고 어려운 지문도 평가원 유형 변형이 되지 않으면 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노리는 변형 유형은, 가장 1순위로 ‘어휘,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2순위로 ‘흐름X’를, 3순위로 ‘어법, 지칭’을 노립니다. 이 순위는 당연히, ‘가장 크리티컬하게 도움이 되는’ 순서입니다. 어휘, 빈칸, 순서, 삽입의 경우 본인이 박세게 공부한 EBS 지문이 나온다면, 지문 당 2, 3초컷을 하게 되는데 메인 유형인만큼 그러지 않은 사람이 2, 3분이 걸리는 데에 비해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연계’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리해 풀겠지요. 참고로 ‘흐름X’ 변형이 제가 두는 중요도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무난히 하나의 주제를 잘 말하고 있는’ 지문이면 변형 가능한 ‘흐름X’ 유형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직전 최종 final 선별에는 이 ‘흐름X’ 변형 지문은, 효율성을 위해 대다수 빠질 수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 b. 당연히, ‘별표 지문만 보면 되나요? ㅎㅎ 헤 히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역할은 볼 지문과 안 볼 지문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선 저는 신이 아닙니다. 매년 아깝게 놓치는 EBS 직접연계 지문이 1, 2개 씩 꼭 있습니다(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제 선별 개수를 고려했을 때 이미 효율성 甲이지만..). 그렇지만 매년 제 선별 지문에서 직접연계의 상당수가 나오므로, 그리고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별표를 준 지문은 충분히 평가원의 관점에서 좋은 지문이라고 판단하고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므로, ‘영어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 되죠. 따라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중요한 수험생의 특성상, 제 별표 지문(A)을 먼저, 또 여러 번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제가 별표를 주진 않았으나 변형을 했거나 아쉽다고 comment한 지문(B)을 그 다음, 그리고 나머지 지문(C)도 단어와 해석을 챙기며 보시기 바랍니다. A 지문은 7번, B 지문은 5번, C 지문은 3번 이상(단어를 다 암기한 상태에서) 해석하길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제발, ‘요약’만 보며 내용만 암기하는 짓은 지양하길 바랍니다. 지문 해석이 ‘주’이고, 제 요약과 변형은 ‘보조’입니다. 이 자료는 ‘영어 실력을 EBS로 늘리면서 연계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손 해석은 다 해야 하나요??**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하길 바랍니다. 별표 지문은 웬만하면 손 해석을 전부 다하기를 추천합니다. 해당 지문이 '속발음'으로 해석이 술술 된다면(정말 되는 건 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길) 그 중 '잘 안 되는 문장'만 직접 손 해석 해보며 고민하고 교정하기 바랍니다. 별표 지문 외에도 본인이 해석 안 되는 지문은, 각 잡고 다 해석해봐야지요.
2. **6, 9평에 간접, 직접으로 나온 거 수능에 안 나오나요??** 평가원에서 '응 안 낼거야'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You know what I mean? '경험적으로'는 6, 9평에 간접 및 직접으로 나온 게 다시 수능에 직접연계 핵심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간접연계' 지문의 경우, 좋은 지문이라면 해당 수능에 다시 나올 확률이 5%는 된다고 봅니다.
3. **단어 적으신 거 다 외워야 하나요??** 네.
4. **한 지문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ㅠㅠ 그냥 핵심 내용만 잡고 넘어갈까요??**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본인의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실력이 늘면, 금방 하고 넘어갑니다. 단어나 해석이 막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한 지문 당 시간을 오래 투자하며 '제대로' 단어 외우고 해석 하고, 다시 그 지문을 여러 번 반복 해석하는 작업을 하며 지문들을 본다면 영어 실력이 급상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영어 실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계속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수박을 까서 맛있게 먹을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시라고요. 단어 외우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싫어합니다. 그만큼 이 '영단어 암기'라는 것이 본인의 '절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친구는, 밥먹으면서도 외웁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는 보통 좋은 결과를 내더군요. 단어가 없으면 총을 쏠 수도,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6. **구문 공부 따로 해야 할까요??** 이는 썸마다 개인 차가 있으나, 저는 '실전파'입니다. EBS 지문을 바로 실전으로 해석하면서 '아 이런 패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를 계속 익히다 보면, 결국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면, 인강이나 책으로 한 번 정리하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7. **이번 6평 29번과 같은 유형이 9평, 수능에도 계속 나올까요??** 그걸 제가 알면 지금쯤 로또 당첨되어 이 자료를 만들고 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ㅎㅎ. 모릅니다. 9평 가봐야 알고, 9평에 나온다 해도 그게 수능에 나오리란 보장은 없고, 9평에 안 나왔다고 수능에 안 나오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변형포인트'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해당 지문을 '여러 번 해석'해서 아예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럼 어떠한 유형으로 나와도 3초 컷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해석하느라 늘은 영어 해석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1. EBS 연계 교재 해당 '강'을 시간을 재고 본다. 본인의 실력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문제 당 1~2분을 설정하고 본다. 시간을 재고 풀어야 가장 집중을 잘한다. 뇌는.
2. 채점을 한다. 혹,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많이 틀린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문풀의 기준은 평가원 기출.
3. 꼭, 이 자료를 보기 전 지문을 보며 '혼자' 해석을 해본다. 제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해석이 잘 되는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체크한다. 모르는 단어, 잘 안 되는 해석 부분을 체크한다.
4. 자료의 요약, 단어, 변형을 보며 내용, 어휘, 변형 논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자료에 없으나 추가적으로 모르는 단어는 꼭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봐 찾아 적는다.
5. 각 문제 분석 페이지 다음에 있는 해석 공간에서 시간을 재고 해석을 한다. 본인의 실력, 지문의 난이도 및 길이에 따라 한 지문 당 짧게는 5분(1등급)~길게는 10분으로 꼭 시간을 재고 한다. 시간을 재고 해석해야 늘어지지 않고, 집중을 가장 잘한다. 뇌는.
6. 해석을 하다가 10초 정도 고민했으나 모르는 부분, 문장은 '비워두고' 넘어가서 해석을 한다. 우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 하나를 다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7. Shean.T의 해석과 비교를 하며 맞추어 보고, 비워둔 부분을 Shean.T 해석과 검색 및 질문을 통해 해결한다. 이 비워둔 부분은 '빨강색' 볼펜으로 채우는 게 좋으며, 그 부분을 본인의 '오답 해석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게 바로 본인의 비장의 노트.
8.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주간의 KISS EBS를 끝내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구두로' 다시 한 번 지문 해석들을 꼭 해본다. 이러면서 영어 단어, 표현, 문장 구조, 해석 능력이 자꾸 체화가 되는 거다. 한 파트(수특영어 유형편, 주제소재편, 테스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 정도로 볼 수 있다)가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 복습 해석!
9. 급격히 향상된 어휘력, 해석력 그리고 EBS 연계의 도움으로 가볍게 1등급을 맞는다.
10. 여러 곳에 감사의 후기를 올려주면 정말 감사하다.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번째, ‘순차적으로’부터 살펴보자면,

1. 순차. 영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의 맨 끝을 앞으로 가져오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위, 그 유명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아래 16학년도 수능 문장을 보시면,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15.11.23)

a. 나이 변화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기에 시작하며 매년 변화의 속도 또한 사람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X)

b. 가능성이 높다 / 나이 변화가 시작할 / 몸의 다른 부분에서 / 다른 시기에 / 그리고 매년 변화의 속도는 다양할 / 세포, 조직, 기관마다 / 또한 사람들마다. (O)

a의 해석은 사실상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다. 이 일은 번역사가 하는 것이고, ‘독해’를 하는 수험생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이다. 따라서 b와 같이 앞에서부터 쪽 가면서, ‘본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 구조 단위’로 묶고,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실전적인 해석’이다.

B에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는 어떻게 한국어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영어 단어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잘 써야, 단어와 단어, 덩어리와 덩어리가 잘 연결된다. 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하고, 영어 고정 1등급은 해석을 시켜보면 이걸 잘한다.

‘어디서 끊느냐’ 하는 것에 정답은 없다. 본인이 한 문장이 쪽 한 눈에 들어오고 의미 파악이 된다면 끊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 눈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대충 쪽 가는 것은 킬러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그리 좋지 않다. 한국어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부분이 제일 좋고, 필자는 전치사, 관계사, 접속사 앞에서 주로 끊는다. 참고!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자연스럽게'를 살펴보자면,

2. 자연. 어떠한 단어, 혹은 어떠한 의미 덩어리를 제발 본인이 외운 그 사전의 첫번째 뜻으로 마구 넣어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자. 물론, 우선 해당 단어의 사전 첫번째 뜻을 외우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외운 뜻을 바탕으로 문맥상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없이 그냥 외운 뜻을 넣기만 하게 되면,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무엇이 되고, 뇌가 어색하게 느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 establish라는 단어는 '설립하다'로 외웠을 것이다. 이 '설립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맞는 한국어'로 바꿔 해석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Establish order(질서)라고 했다고 하자. 한국어로, '질서를 설립하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설립은 보통 재단, 기관을 설립하지 질서를 설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면서 '질서'와 어울리는 한국말은? 바로 '질서를 확립하다.' 또한, established experts가 있다고 하자. 직역하면 '설립된 전문가들'인데, 역시나 이건 한국어가 아니다. 하지만, '설립된'을 통해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떠올린다. '이미 설립된.. 이미 세워졌구나.. 전문가가 이미 설립돼서 자리를 잡았어..' 아, '이미 자리를 잡은' 전문가들이구나. '인정 받는', '저명한'까지 가도 우리가 없고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쌘! 저명한이라뇨, prominent가 아닌데요?'라는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 얼른 '이유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해석에 정답은 없다. '어울리는 지 아닌 지'만 있을 뿐.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문장을 보자.

Each year more farmland was devoured to build strip malls and neighborhoods with larger homes. (13.11.43)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 게걸스럽게 먹혀진다(?) / 길가 상점들을 짓기 위해 / 그리고 인근에 큰 집들을 짓기 위해

걸리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 농경지가 게걸스럽게 먹혀진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devour'가 '게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외웠어야 한다. 다음 스텝은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자 '상황'은 농경지를 상점과 집들로 바꾼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was devoured를 '바꿨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니까. 여기에 devour의 느낌까지 살리자면, '농경지를 갈아 엮다'까지 갈 수 있겠다.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는 뜻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개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한국어가 좋은 친구들이라면 위의 '바꿨다'는 뜻에서 '전용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정답은 없다. 위와 비슷한 의미로 '본인이' 떠오른 단어를 쓰면 된다. 단,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면 된다. +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려면 'they, them'을 제발 '그들은, 그들을' 그만하고, 뭘지 파악해서 정확히 한국어로 풀어주도록 하자!

명심하자. 영어는 '언어'이고, '상식'이다. 한국어의 상식에서 움직이자.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순하게'를 살펴보자면,

3. 단순. 긴 문장은 정말 길다. 그리고 다른 모의평가도 아닌 '수능'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쉬워도 대의파악(주제, 제목..)부터 한 지문에 몇 줄이 되는 긴 문장이 꼭 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보통은 지레 겁먹게 되고, 하나 하나 다 해석하려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어떻게 덩어리로 묶어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단순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빈칸 문장을 살펴보자.

This intentional error functions as an advance warning system,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subself,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13.11.34)

어렵다. 길어도 긴 편이고, 단어도 만만치가 않다. 굳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조기 경보 체계로서, / 자기 보호 자아를 통해 인간이 사용하는, / 인간에게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면서 / 직면했을 때 / 위험하게 다가오는 물체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저 문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즉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도 거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다. 이 full sentence를 어떻게, 덩어리 별로 핵심 단어를 콕아서, '단순화'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장에 대한 '실전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 해보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경고 시스템으로 / 인간이 사용하는 / 안전을 제공하면서 / 위험한 물체에 직면했을 때

'진하게' 처리된 단어가 내용 전달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가 '단순화'하여 이해해야지 만이 읽고나서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저에는, 잘 살펴보면, 역시 각 덩어리를 잇는 '조사'에 핵심으로 걸리는 단어를 고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고의적 오류는 기능한다. 뭐로서(as)? 경고 시스템으로서. 뭐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뭘 제공하면서? 안전을. 언제? 위험할 때. 이런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순화' 해석은 실전적 해석으로, 본인의 해석력을 늘려야 하는 공부에서는(이 EBS 지문을 통한 해석 공부처럼), 웬만하면 단순화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다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려 연습하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다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단순화'한 해석이 된다.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가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Shean 영어’ ‘Shean EBS’ 치시면 나오니 ‘구독’해주세요.
자료와는 별개로 자비를 들여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이니,
(자금난으로 수능완성은 현재 촬영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료 홍보 많이 해주세요 ㅎㅎ)
추가적인 여러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hean.T 드림.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가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Shean 영어’ ‘Shean EBS’ 치시면 나오니 ‘구독’해주세요.
자료와는 별개로 자비를 들여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이니,
(자금난으로 수능완성은 현재 촬영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료 홍보 많이 해주세요 ㅎㅎ)
추가적인 여러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hean.T 드림.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9강: 어휘, Check 

The **equipment** of the kitchen can seem unimportant compared to the history of food itself. It is all very well fussing over the details of table settings and jelly moulds, but what does this matter compared to a basic hunger for bread? Perhaps this explains why kitchen tools have been so **neglected** in histories of food. Culinary history has become a hot subject over the past two decades. (1) But the focus of these new histories, with a few **notable** exceptions, has **overwhelmingly** been **ingredients** rather than technique: what we cooked rather than how we cooked it. (2) There have been books on potatoes, cod and chocolate and histories of cookbooks, restaurants and cooks. (3) The kitchen and its tools are more or less **absent** — and as a result, half the story is missing. (4) This matters: we change the **texture**, the taste, the **nutritional content** and the cultural associations of ingredients simply by using different tools and techniques to prepare them.

* fuss: 법석[야단/호들갑]을 떨다 ** culinary: 요리의



Summary

1. Until now: 배고픔이 증하지 도구는 노의미라 음식 그 자체(A)가 부엌 설비(B)보다 중요하다 생각
2. 실제로 지난 20년 간 B에 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A에 관한 얘기만 맨날 해옴
3. However, B도 중요!! B를 활용하여 요리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줄 수 있음



KEY Point

1. 변형: 흐름 X. (1) ~ (4) 문장은 모두 A 혹은 B가 중점이었다는 얘기. 문화마다 한 요리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다든지, 요리사도 중요하다든지 헛소리하면 탈락~



Vocabulary

1. equipment: 장비, 설비
2. neglect: 무시하다(ignore)
3. notable: 주목할 만한
4.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극도로
5. ingredient: 성분, 재료
6. absent: 부재한
7. texture: 촉감
8. nutritional content: 영양 성분

The equipment of the kitchen can seem unimportant compared to the history of food itself. It is all very well fussing over the details of table settings and jelly moulds, but what does this matter compared to a basic hunger for bread? Perhaps this explains why kitchen tools have been so neglected in histories of food. Culinary history has become a hot subject over the past two decades. But the focus of these new histories, with a few notable exceptions, has overwhelmingly been ingredients rather than technique: what we cooked rather than how we cooked it. There have been books on potatoes, cod and chocolate and histories of cookbooks, restaurants and cooks. The kitchen and its tools are more or less absent — and as a result, half the story is missing. This matters: we change the texture, the taste, the nutritional content and the cultural associations of ingredients simply by using different tools and techniques to prepare them.

* fuss: 법석[야단/호들갑]을 떨다 ** culinary: 요리의

부엌 설비는 중요치 않게 보일 수 있다 / 음식 그 자체의 역사에 비교하자면. / 굉장히 야단법석이다 / 식탁 세팅과 젤리 틀의 디테일에 관해서, / 하지만 이게 뭐가 중헌니 / 빵에 대한 기본적인 배고픔에 비해서? / 아마 이것이 왜 부엌 조리 도구들이 그렇게 무시되어 왔는 지를 설명할 것이다 / 음식의 역사에서. / 요리의 역사는 뜨거운 주제가 되어 왔다 / 지난 20년 간. /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초점은, / 소수의 주요한 예외 말고는, / 압도적으로 재료에 있었다 / 기법이 아니라: / 즉 무엇을 요리했는가이다 / 어떻게 요리했는 지가 아니라. / 책은 있었다 / 감자, 대구, 초콜릿에 관한 / 그리고 요리책, 식당, 요리사의 역사에 관한. / 부엌과 조리 도구들은 다소 부재하였다 / - 그 결과, 이야기의 절반이 없는 것이다. / 이는 중요하다: / 우리는 식감, 맛, 영양 성분, 재료의 문화적 연관성을 바꾼다 / 단순히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 이것들을 준비하는.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9강: 어휘, 1번



Many animals, including **warm-blooded mammals**, change body position or posture to help **regulate** internal temperature. This, too, is a familiar behavior in the cold when animals **curl up to conserve** heat and groups of animals, such as puppies and kittens, **huddle** together for protection from the cold. (B The same types of postural adjustments are seen in the heat. Retracted postures lessen heat loss to the environment by decreasing the surface area available to exchange heat.) (C They are favored when **surrounding** temperature is much colder than body temperature. Extended postures increase heat loss by increasing the surface area of the body exposed to the environment.) (A They are useful to dissipate heat when the environment is hot but still below the body temperature. (삽입 However, body extension does not work when surrounding temperature is warmer than body temperature, because heat **accumulates** faster.) Hence, **physiological** strategies, such as sweating, must **be called into play**.)

* retract: 움츠리다 ** dissipate: 소멸시키다



Summary

1. 신체 온도 조절을 위해 동물들은 몸을 움츠리거나 서로 모이는 등 자세를 바꿈
2. 움츠린 자세(A)는 표면적을 줄여 추울 때 열 손실을 줄임. 쪽 뻗은 자세(B)는 표면적을 넓혀 더울 때 열 방출
3. However, Cause: 주변 온도가 체온보다 높음 → 열 축적이 빨라져 B가 노의미(P) → 땀 흘리기 사용(S)



KEY Point

1. 변형1: 순서. 동물이 자세를 교정한다는 도입부 → 움츠린 자세(A) → 뻗는 자세(B)로 이어지는 좋은 흐름에 A, B를 다 they로 받아 나름 헛갈리게 할 수 있는, 어렵진 않지만 갈.끔.한. 순서.
2. 변형2: 문장 삽입. 삽입 문장 바로 전 문장이 B가 유용하다는 얘기이고 이를 however로 받으며 유용하지 않다는 문장. Problem 문장이며 따라서 마지막 문장에 solution이 제공되는, 논리적으로 참 관참은 문삽!



Vocabulary

1. warm-blooded mammals: 온혈 포유류
2. regulate: 조절하다
3. curl up: 움츠리다
4. conserve: 보존하다
5. huddle: 모이다
6. postural adjustment: 자세 조정
7. surrounding: 주변의
8. extended: 늘린
9. accumulate: 축적되다
10. physiological: 생리적인
11. be called into play: 작동되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9강: 어휘, 1번

Many animals, including warm-blooded mammals, change body position or posture to help regulate internal temperature. This, too, is a familiar behavior in the cold when animals curl up to conserve heat and groups of animals, such as puppies and kittens, huddle together for protection from the cold. The same types of postural adjustments are seen in the heat. Retracted postures lessen heat loss to the environment by decreasing the surface area available to exchange heat. They are favored when surrounding temperature is much colder than body temperature. Extended postures increase heat loss by increasing the surface area of the body exposed to the environment. They are useful to dissipate heat when the environment is hot but still below the body temperature. However, body extension does not work when surrounding temperature is warmer than body temperature, because heat accumulates faster. Hence, physiological strategies, such as sweating, must be called into play.

* retract: 움츠리다 ** dissipate: 소멸시키다

많은 동물들은, / 온혈 포유류를 포함하여, / 몸의 위치와 자세를 바꾼다 / 내부 온도 조절을 돕기 위해. / 이는 또 한 비슷한 행동이다 / 추위 속에서 하는 / 동물들이 몸을 구부릴 때 / 열을 보존하기 위해 / 그리고 동물 집단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 웅크려 모일 때 / 추위 보호를 위해. / 같은 종류의 자세 조정이 보여진다 / 더위 속에서도. / 움츠린 자세는 환경에 대한 열 손실을 감소시킨다 / 표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 열 교환에 이용되는. / 움츠린 자세는 선호된다 / 주변 온도가 더 차가울 때 / 체온보다. / 몸을 뻗는 자세는 열 손실을 증가시킨다 / 신체 표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 뻗는 자세는 유용하다 / 열을 소멸시키는 데 / 주변 환경이 덥지만 여전히 체온 아래일 때. / 하지만, 몸을 뻗는 것은 효과가 없다 / 주변 온도가 체온보다 더 따뜻할 때, / 열이 더 빨리 축적되기 때문에. / 그러므로, 생리적 전략이, 땀 흘리기와 같은, / 작동해야 한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9강: 어휘, 2번

Problem definition is affected by social context in any **domain**. Individuals can become unable to **redefine** problems or **evaluate progress** on current problems due to the attitudes of the group. For example, in an office environment, individuals may be familiar with a particular computer application for word processing. However, the program eventually may become **outdated** or unsupported. Initially, the group may simply go through the process of **converting** files or rewriting documents, rather than **abandoning** the program for one that is more **appropriate**. Here the problem has become not word processing, but rather the word processing program itself. The problem is not particularly difficult to spot, but the ways of the group may be so entrenched that changing programs becomes an **unacceptable** option. In other words, the attitudes of a group can be **pervasive**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individual.

* entrenched: 깊게 뿌리박힌



Summary

1. 문제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맥락에 영향 받음 → 집단의 태도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2. Ex.: 한 집단에서 쓰던 사무 프로그램이 구식이 되었는데 이걸 새 것으로 안 바꾸고 계속 쓰려는 경향
3. 개인의 의사 결정에 집단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



KEY Point

1. 아주 무난히 좋은 지문. 딱 좋은 변형이 없어 별표를 주진 않았지만, 무난히 대의파악 연계 되기도 좋음



Vocabulary

1. domain: 영역
2. redefine: 재정의하다
3. evaluate: 평가하다
4. progress: 진척(상태)
5. outdated: 구식의
6. convert: 변환하다
7. abandon: 포기하다
8. appropriate: 적절한
9. unacceptable: 수용 불가한
10. pervasive: 만연한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9강: 어휘, 2번

Problem definition is affected by social context in any domain. Individuals can become unable to redefine problems or evaluate progress on current problems due to the attitudes of the group. For example, in an office environment, individuals may be familiar with a particular computer application for word processing. However, the program eventually may become outdated or unsupported. Initially, the group may simply go through the process of converting files or rewriting documents, rather than abandoning the program for one that is more appropriate. Here the problem has become not word processing, but rather the word processing program itself. The problem is not particularly difficult to spot, but the ways of the group may be so entrenched that changing programs becomes an unacceptable option. In other words, the attitudes of a group can be pervasive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individual.

* entrenched: 깊게 뿌리박힌

문제의 정의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어느 영역에서나. / 사람들은 문제를 재정의 할 수 없게 되거나 / 현안에 대한 진척 정도를 평가할 수 없게 된다 / 집단의 태도 때문에. / 예를 들어, 사무실 환경에서, 사람들은 아마 익숙할 수 있다 / 한 특정한 프로그램에 / 문서 작업을 위한. /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결국 구식이 되거나 더 이상 지원이 없을 수 있다. / 처음에는, 해당 집단이 단지 겪을 수 있다 / 파일 변환 작업 과정이나 / 문서를 재작성하는, /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 대신에 / 더 적절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 여기서 문제는 문서 작업이 아니라, / 문서 작업 프로그램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 문제를 찾아내기는 특별히 어렵진 않지만, / 집단의 방식은 아마 너무 깊게 뿌리박혀 있을 수 있다 /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수용 불가능한 선택지가 된다. / 다시 말해, 집단의 태도가 만연할 수 있다 /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9강: 어휘, 3번



One way to evaluate potential **bias** on a mental health website is to see if products or services are being promoted or sold. If they are, the information may be **selective**; it may include only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 positions/ approaches being marketed. For information posted by individuals, often those who have or have had a **disorder**, keeping the potential bias of the author in mind is wise. (1) An individual may post his/her own story, or a **chronicle** of his/her own experience with the disorder, with the ostensible goal of helping others by providing an example. (2) Whether **intentional** or not, such postings are also ways to **obtain** attention or **validation**, and the material may include or exclude **relevant** details. (3) The user of such information should approach it with an understanding that these **accounts** may be more helpful to the author than to the reader. (4) There are few mental disorders for which there is only one road to recovery; those who have been helped may believe their own path is the map for others.

* ostensible: 표면상의



Summary

1. 정신 건강 사이트의 선입견 여부 판단 방법: 상품을 파는 지 보기. 판단면 유리한 정보만 게시한 걸 수도.
2. 사람들 후기가 막 올라오는데, 분명 글 쓴 사람의 사견이 들어간 것이니 항상 이를 명심하여 참고하길
3. 하나의 정신 질환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으나, 글쓴이는 자기 해결책이 유일하다고 믿음



KEY Point

1. 변형: 흐름X. (1) ~ (4) 문장은 모두 정신 질환 치료 사이트의 후기들이 편향된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장. 정신 질환은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라든지 그럴듯하지만 다른 topic 얘기 나오면 탈락!



Vocabulary

1. bias: 선입견
2. selective: 선택적인
3. disorder: 장애
4. a chronicle: 연대기
5. intentional: 고의적인
6. obtain: 얻다
7. validation: 입증
8. relevant: 관련된, 적절한
9. an account: 설명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9강: 어휘, 3번

One way to evaluate potential bias on a mental health website is to see if products or services are being promoted or sold. If they are, the information may be selective; it may include only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 positions/ approaches being marketed. For information posted by individuals, often those who have or have had a disorder, keeping the potential bias of the author in mind is wise. An individual may post his/her own story, or a chronicle of his/her own experience with the disorder, with the ostensible goal of helping others by providing an example. Whether intentional or not, such postings are also ways to obtain attention or validation, and the material may include or exclude relevant details. The user of such information should approach it with an understanding that these accounts may be more helpful to the author than to the reader. There are few mental disorders for which there is only one road to recovery; those who have been helped may believe their own path is the map for others.

* ostensible: 표면상의

One way to evaluate potential bias on a mental health website is to see if products or services are being promoted or sold. If they are, the information may be selective; it may include only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 positions/ approaches being marketed. For information posted by individuals, often those who have or have had a disorder, keeping the potential bias of the author in mind is wise. An individual may post his/her own story, or a chronicle of his/her own experience with the disorder, with the ostensible goal of helping others by providing an example. Whether intentional or not, such postings are also ways to obtain attention or validation, and the material may include or exclude relevant details. The user of such information should approach it with an understanding that these accounts may be more helpful to the author than to the reader. There are few mental disorders for which there is only one road to recovery; those who have been helped may believe their own path is the map for others.

* ostensible: 표면상의

잠재적 선입견을 평가하는 한 방식은 / 정신 건강 웹사이트에서 / 제품이나 서비스가 홍보 혹은 판매 되는 지를 보는 것이다. / 만약 그렇다면, 정보는 선택적일 수 있다 / 정보만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 입장이나 접근방식을 지지하는 / 마케팅 되고 있는. / 개인이 올린 정보의 경우, / 장애를 가지거나 가졌던, / 저자의 잠재적 선입견을 명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 한 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올릴 수 있다, / 혹은 시간적 기록을 / 자신의 장애 경험에 대한, / 다른 이들을 도와줄 표면상의 명목으로 /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 고의적이든 아니든, / 그러한 글은 또한 방법이다 / 주목을 받거나 입증을 하기 위한, / 그리고 해당 자료는 관련된 세부사항을 포함하거나 혹은 배제할 수 있다. / 그러한 정보의 사용자는 이에 접근해야 한다 / 이해하면서 / 이러한 설명들이 저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 독자에게보다. / 정신 질환은 거의 없다 / 회복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 아마 믿을 것이다 / 그들 자신의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맞는 길이라고.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9강: 어휘, 4번



The intense **tropical** sunlight warms the air, and **tropical latitudes** are characterized by warm temperatures. (B Since **daylength** is more or less **constant** through the **tropical year**, there is relatively little **fluctuation** in temperatures through the year. Those of us who live in the **temperate** zones are accustomed to **heatwaves** during the summer and **cold spells** during the winter, both of which are consequences of **varying daylengths**.) (A The long summer days heat the air, and if the air is stagnant, this heat **accumulates** and can't be lost during the short nights. The everlasting darkness in the Arctic region during the northern winters allows **ample opportunity for air to lose its heat**, and when this frigid air pushes into our more temperate latitudes it can cause **devastating cold spells**.) (C But in the tropics the **uniformity** of daylength means that there are no such opportunities for heat to build up or be lost. Although there may be seasonal fluctuations in temperature, they tend to be minor.)

* stagnant: 정체된 ** ample: 충분한 *** frigid: 몹시 추운



Summary

1. 열대 지방(A)에선 보통 일조량이 연중 내내 일정하기 때문에, 기온 변동이 적음
2. However, 온대 지방(B)에선 일조량이 변화하여 여름엔 폭염, 겨울엔 한파가 생김.
3. However, 열대 지방(A)에선 일조량이 균일하여 열 축적 혹은 손실이 별로 없음. 있어도 미미함.



KEY Point

1. **변형: 순서.** 열대 - 온대 - 열대로 이어지는 좋은 흐름과 명확한 근거. 또한 (B 다음에 (C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C의 such opportunities for heat to build up or be lost를 받을 수가 없다!
2. 폭염 지문이라.. 평가원 출제자 분들이 격공하셔서 나올 거 같음 그래서 별 두개 ㅎㅎㅎ



Vocabulary

1. tropical: 열대의
2. latitude: 위도
3. be characterized by: ~로 특징지어지다
4. daylength: 일조량
5. constant: 일정한
6. fluctuation: 변동
7. temperate: 온대의
8. be accustomed to N: 익숙하다
9. heatwave: 폭염
10. cold spell: 한파
11. varying: 변화하는
12. accumulate: 축적되다
- 13: ample: 풍부한
14. devastating: 끔찍한
15. uniformity: 균일성
16. build up: 축적되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9강: 어휘, 4번

The intense tropical sunlight warms the air, and tropical latitudes are characterized by warm temperatures. Since daylength is more or less constant through the tropical year, there is relatively little fluctuation in temperatures through the year. Those of us who live in the temperate zones are accustomed to heatwaves during the summer and cold spells during the winter, both of which are consequences of varying daylengths. The long summer days heat the air, and if the air is stagnant, this heat accumulates and can't be lost during the short nights. The everlasting darkness in the Arctic region during the northern winters allows ample opportunity for air to lose its heat, and when this frigid air pushes into our more temperate latitudes it can cause devastating cold spells. But in the tropics the uniformity of daylength means that there are no such opportunities for heat to build up or be lost. Although there may be seasonal fluctuations in temperature, they tend to be minor.

* stagnant: 정체된 ** ample: 충분한 *** frigid: 몹시 추운

강렬한 열대 지방 햇빛이 대기를 덥힌다, / 그러면 열대 위도는 특징 지어진다 / 따뜻한 온도로. / 일조량이 다소 일정하기 때문에 / 1년간 열대 지방에서, / 상대적으로 변동이 거의 없다 / 온도에 있어 / 연중 내내. / 온대 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 폭염에 적응되어 있다 / 여름에 / 그리고 겨울 한파에, / 둘 다 변화하는 일조량의 결과이다. / 긴 낮의 여름날이 대기를 덥히고, / 만약 대기가 정체되어 있다면, / 이 열은 축적되고 / 손실될 수 없다 / 짧은 밤에. / 북극 지역의 영원한 어둠은 / 북부 겨울 동안 /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 개기가 열을 손실시킬 수 있는, / 그리고 냉기가 열대 위도 지역으로 진입할 때, / 이는 끔찍한 한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열대 지방에서 일조량의 균일성은 의미한다 / 그러한 기회가 없다고 / 열이 축적되거나 손실되는. / 온도의 계절적인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 미미한 경향을 띤다.